

민주 “쌍특검 당분간 재의결 없다…尹에 철회 시간 줄 것”

홍익표 “권한쟁의심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검토 후 조치”

“중앙은행 돈 빌려 구멍난 재정 메꾸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재의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연 의원총회에서 “쌍특검 재의결 절차가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언제 할지 정확한 날짜는 당분간 기억할 수 없다. 당분간 재의결 절차를 밟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본인 가족을 위한 방탄 거부권을 국회가 거수기처럼 수용할 이유 없다는 게 첫째”라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거부권을 철회할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쟁의심판, 이해충돌방지법과의 충돌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걸 모두 감안해 적절한 시점에 재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결 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 그리고 (거부권을) 철회한 이후 지체 없이 공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며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절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철회하고 공표한 바 있다”며 “국민과 함께 당분간 시간을 드리겠으니 독선과 오만으로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쌍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어서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무력화 시도를 국회가 막아야 한다”

며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일컫는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이른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재의결 시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

이와 함께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홍기 피습 사건 수사와 관련, “경찰은 진실 은폐 비판과 정치적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짜뉴스와 허위 비방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으로부터 117조원을 빌려 쓴 것에 대해서 “정부가 세수 추계 실패와 주먹구구식 재정 운영으로 인한 자금 부족을 매우 기 위해서 한국은행을 마이너스 통장 취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재정에 난 구멍을 메꾸는 임시방편으로 중앙은행 돈을 가져다 쓰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총선에만 정신이 팔려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은 내팽개치고 있고 재정 운영 비전은 없고 정말 작은 구멍가게만도 못한 국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PF 유동성 위기와 건설사 줄도산 위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돌려막기 땀질 처방이 태영건설 부동산 PF 위기 불러”

민주 ‘건설사 줄도산 대응’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최근 태영건설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부실 대응이 사태의 원인이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와 건설사 줄도산 위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만기 연장이라는 돌려막기 땀질 처방에만 올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태영건설 사태는 시작에 불과하고 올해는 부동산 PF 구조조정의 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정부는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제대

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지난해 초 부동산 PF 연속 부도를 막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 등 대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정부의 무능, 성실하지 못한 태도가 시장 상황을 더 이상 악화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태영건설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면서 “신속하고 투명한 옥석 가리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만약 워크아웃이 합의되지 않으면 분양자가 타격받고 협력업체도 큰 위험에 빠진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주주의

자극을 내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문가의 향후 건설업계 전망과 해법 제안도 이어졌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태영건설 법정관리가 이행될 경우 시장은 PF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인식, 대출금 회수에 나서면서 건설사 연쇄 부도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태영건설 외에도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건설사가 다수 등장할 것”이라며 “부동산 PF 위기의 단기적이면 서도 효과적인 방안은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결단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보육교사 정당한 지도, 아동학대 면책 근거 마련

복지부 소관 16개 법안 국회통과

보호시설 퇴소 아동 재보호 가능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보육 교직원에 정당한 영유아 생활지도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체교사 등 보육 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대체인력 지원과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했다.

함께 통과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이더라도 대학 재학 등

의 사유로 자립이 어려우면 ‘25세 까지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시설 등에서 아동을 보호할 때는 아동에게 보호에 이르게 된 과정과 목적, 예상 보호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해 아동의 알권리를 지켜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간·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등 소아진료기관 지정과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소득정률제’ 도입에 명시됐다.

복지부는 이로써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치료 보호기관은 앞으로 ‘3년 주기’로 평가를 받는다.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의료진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연합뉴스

이재명, 오늘 퇴원...“상태 많이 호전, 당분간 자택서 치료”

피습 8일만...“퇴원, 병원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8일 만인 10일 퇴원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내일 퇴원한다”며 “퇴원하면 자택으로 귀가하고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퇴원은 오늘 병원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현지 방문 일정 중에

김모(67) 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했다. 사건 당일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한 뒤,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67)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국민에

게 공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7명으로 구성된 회의 참석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논의해 무기명으로 투표했다. 그 결과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이 3명, 반대하는 위원이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광산구

광산구민상 수상

첨단우리병원은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정형외과 중점 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쌍암공원 앞 위치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드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주)**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